

목포시 신흥 ‘스포츠 강소도시’ 급부상

동아시아 U-15 여자축구 개막
2020년 세계 농아인 축구 유치
2022년 전국체전 개최 계기
FIFA 여자월드컵 유치도 나서

목포시가 2022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부가가치에 주목하면서 잇따라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신흥 스포츠 강소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막을 올린 동아시아 U-15 국제 여자축구대회가 목포 국제축구센터(이하 목포 FC)에서 오는 11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회원국 가운데 8개국 250여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목포시는 민선 7기 출범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이번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5억원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시설 보강 사업을 펼쳤다.

특히 목포시와 목포 FC는 이번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를 살려 세계 농아인들의 축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2020년 제4회 세계 농아인 축구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들어 사실상 목포시 유치를 확정짓는 패거리를 달성했다.

목포 FC에 따르면 농아인들은 장애인 이면서도 장애인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농아인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U-15 국제여자축구대회에 출전한 북마리아나제도 선수들이 지난 4일 시합에 앞서 슈팅 연습으로 몸을 풀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축구선수권대회는 사실상 축구 월드컵이 나 마친가이다. 세계 32개국(남자 24개국, 여자 8개국)에서 선수·임원 1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2020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목포 FC에서 개최된다.

역대 제1회 대회는 2008년 그리스, 2회 대회는 2012년 터키, 3회 대회는 2016년 이탈리아에서 각각 개최됐다.

윤재공 목포 FC센터장은 “대한민국 개최 확정 이후 국내 4개 도시가 경쟁해 창원시가 유력시 됐으나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목포시가 유치하게 됐다”면서 “민선 7기

김종식 체제 출범 이후 스포츠 부가가치에 주목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유치는 윤재공 목포 FC센터장과 권영호 마케팅 팀장이 혼신을 쏟아부은 마케팅 결과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 3억원을 반영했다.

또 2022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국제 규격의 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 중인 목포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 FIFA 여자월드컵 개최 도시 유치전에도 가세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사·도는 8곳(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고양, 용인) 등으로 목포시는 전남을 대표해 의향을

제출했다.

개최도시는 8-9월 대한축구협회의 시설 확인과 12월 FIFA측의 유치도시 실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홍성채 목포시 체육지원팀장은 “최근 스포츠를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스포츠 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국제여자축구대회, 제4회 세계 농아인 축구 월드컵 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주력해 스포츠 강소도시로서 목포시 위상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김종식 목포시장이 제1회 섬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오전 삼학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폭염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현안 많은 8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김종식 시장 섬의날 행사 현장 점검

“8월은 목포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섬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비상한 각오로 집중해 달라”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일 정례조회에서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동아시아 국제축구대회도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은 “9월 6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전라남도혁신박람회,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현안과 세계마당페스티벌, 문화재야행 등을 아우르는 목포가을페스티벌

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상호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 3일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인 삼학도 현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편의사항과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 설치와 생수 2만여 병을 확보해 급수봉사를 실시하는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대비해 강풍과 폭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서 한달 여행해보니...“근대·해양사에 美치고 음식에 味친다”

지역 체험여행 프로젝트

참가자 4팀 12명 간담회

“근대사·해양사에 미(美)치고 맛난 음식에 미(味)친다.”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들이 전한 목포관광 소감이다.

목포시는 최근 지역 체험여행 프로젝트인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24팀 가운데 4팀 12명을 초청해 목원동 만인계 웰컴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의 첫 인상, 여행 소감, 개선할 점 등 전국에서 온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관광정책의 첫 피드백(feed back)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 자리에 예정에 없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참여는 외지 관광객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경청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간담회에 참석한 ‘남도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들이 목포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 창원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온 설미정씨는 “목포자연사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6개 박물관을 묶어서 각 박물관마다 스텝프를 짰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인 정아호군은 “아간 시

티투어가 좋았고 무엇보다 해양유물전시관이 매력적이었다. 박물관이나 해적선 같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좁은 골목길이 너무 너무 좋았다. 목포에만 있는 최고의 자원이다. 근대역사관, 적산가옥 등 일제 강점기 유

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 살아있는 제2의 독립기념관”이라는 찬사도 쏟아졌다.

하지만 “시티투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아간 시티투어 방문 거점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코스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각에서는 “각지에서 온 참여자들로 하여금 목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 이를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픈 근대사’와 ‘신비로운 해양사’ 그리고 ‘맛난 남도 음식’ 등 3가지 테마로 요약된다.

김영숙 목포시 관광과장은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견인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에서 한 달 여행하기’에 선정된 24팀 60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8팀 20여명이 목포를 방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신항 2040년까지 4109억원 투입 車전용부두 등 제조 지원항만으로 개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목포 신항이 2040년까지 자동차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등을 추가조성 제2기반 지원항만으로 본격 개발된다.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목포 신항 개발계획에 4109억원 투입을 골자로 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확정으로 목포 신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추가 확충되고 항만배후부지 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또 배후선 전용부두가 신설되고 신항 대체진입도로도 건설된다.

부두는 5만t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해 신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를 연간 50만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신항에 배후선 부두를 신설해 입·출항하

는 선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석탄부두는 잡화부두로 전환된다. 배후부지는 106만㎡를 새로 조성해 자동차, 철재 등 제조업 기반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대불산단에서 신항까지 약 1.7km 길이의 신항 대체진입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신항에 진입하는 차량의 소통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신항에 해경 서부정비창이 건설되어 서해 및 남해 해역의 해경함정의 수리정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목포 신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포항이 지역 핵심 산업 지원 및 신 남방·대중국 교역의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